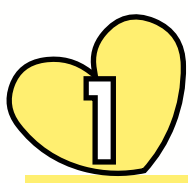


제58호
과천돌보기 사용설명서

과천시 보건·복지 어떤지 복고싶지?



1 과천시의 의료 현황

- 2021~2025년 과천시 의료기관 수는 97개에서 146개로 5년 간 49개(+50.5%) 증가
- 의원(39개→60개)이 가장 큰 폭(21개)으로 늘어 전체 증가를 견인
- 의료인력은 2024년 220명에서 2025년 230명으로 소폭 증가

과천시 의료기관 수는 2021년 97개에서 2025년 146개로 5년 사이 49개(+50.5%)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의원이 39개(2021)에서 60개(2025)로 21개 증가하여 전체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약국도 21개에서 32개로, 치과병·의원은 21개에서 29개로, 한의원은 15개에서 24개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에 보건소는 5년 내내 1개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지식정보타운 입주가 본격화된 시기와 맞물려 1차 의료기관(의원·약국·치과)이 빠르게 확충된 반면, 공공 의료 인프라인 보건소는 확충되지 않은 점이 대조적이다.

의료 인력 규모를 2024년과 2025년으로 비교하면 총 인원이 220명에서 230명으로 10명(+4.5%) 증가하였다. 직종별로는 전문의(64→67명), 치과의사(33→36명), 한의사(20→26명), 물리치료사(41→46명) 등 고르게 늘어난 반면, 일반의는 15명에서 9명으로 6명 줄었고 약사도 46명에서 45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주요 직종의 인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분야별 대응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진료 인력의 감소 추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2023년 대비 2024년 진료비 +11.4%, 급여비 +12.5% 증가하며 진료실적 전 지표가 상승
- 과천시 건강보험적용인구는 2021년 74,088명에서 2024년 86,438명으로 4년간 16.7% 증가

2023년 대비 2024년 과천시 진료 실적 현황을 보면 입내원일수⁽¹⁾는 1,620,200일에서 1,705,389일로 5.3% 늘었고, 요양급여일수⁽²⁾가 15,748,151일에서 16,975,045일로 7.8% 증가하였다. 진료실인원수⁽³⁾도 79,167명→82,779명으로 4.6% 늘었다. 특히 비용 지표인 진료비⁽⁴⁾(149,380백만원→166,454백만원, +11.4%)와 급여비⁽⁵⁾(111,587백만원→125,491백만원, +12.5%)의 증가율이 이용량 지표 증가율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 단순한 이용자 수 증가보다 1인당 진료 강도나 진료 단가 상승이 비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적용인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산해 2021년 74,088명에서 2024년 86,438명으로 4년간 12,350명(+16.7%) 증가하였다. 직장가입자는 59,867명에서 68,931명으로, 지역가입자는 14,221명에서 17,507명으로 각각 늘어 두 유형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지식정보타운 입주가 본격화되며 과천시 주민등록인구가 2021년 12월 73,345명에서 2024년 12월 85,512명으로 크게 늘어난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입주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가 직장가입자 증가로 이어지며 건강보험적용인구 확대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1) 입내원일수: 건강보험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
(2) 요양급여일수: 입내원일수에 원내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단, 내원과 투약이 중복된 날은 1일로 산정
(3) 진료실인원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진료 받은 환자 수
(4) 진료비: 급여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와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를 합산한 진료비용
(5) 급여비: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내는 일부본인부담과 정해진 금액 전부를 환자가 내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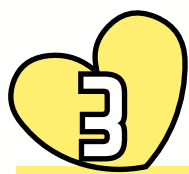


과천시 복지수요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등록장애인·독거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의 절대적인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
- 단,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1.61%)과 등록장애인 비율(2.91%)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저

과천시 기초생활 수급자는 2021년 1,032명(742가구)에서 2025년 1,289명(946가구)으로 인원 기준 24.9%, 가구 기준 27.5% 증가하였다. 수급률은 약 1.61%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저 수준이다. 등록 장애인 수 역시 2,175명에서 2,424명(2024년)까지 늘었다가 2025년 2,332명으로 소폭 줄었고, 비율(2.91%, 2025년)도 경기도 최저다. 같은 기간 동안 지식정보타운 입주에 따른 인구 급증을 감안하면, 낮은 수급률은 절대적인 복지수요가 적다고 해석하기 보다 분모(인구) 급증에 따른 착시 효과일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특히 젊은 층(신혼부부 등)·고소득 가구 유입과도 맞물린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독거노인가구(65세 이상 1인가구)는 2021년 1,417명에서 2025년 1,743명으로 23% 늘었으나 비율은 6% 전후로 전국(10.9%)·서울(9.1%)·경기(8.6%) 평균을 모두 밑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3,085명→3,597명(+16.6%)으로 늘었지만 수급비율은 29.8%→28.2%로 오히려 하락했는데, 전국(64.9%)·서울(53.7%)·경기(60.7%) 평균을 감안했을 때, 과천시 내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고령층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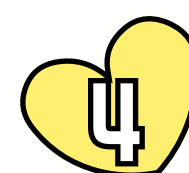


과천시 사회복지 예산은?

- 과천시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21년 834억 원에서 2026년 1,487억 원으로 78.3% 증가
- 사회복지비 비율(26.73%, 2024년 결산 기준)은 전국·경기·서울 평균을 모두 밑돌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

과천시 사회복지분야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2021년 83,406백만원에서 2026년 148,732백만원으로 6년 간 78.3% 증가하였다. 결산액 기준으로도 2021년 92,471백만원에서 2024년 138,001백만원으로 49.2% 늘어, 예산·결산 모두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전체 세출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은 2021년 20.62%에서 2024년 26.73%로 6.11%p 상승했음에도, 같은 시점 전국 평균(39.42%), 경기도 평균(43.74%), 서울 평균(45.35%)에 비하면 여전히 약 13~19%p가량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결산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복지비 비율을 비교하면 과천시(26.73%)는 30위에 그쳐, 최상위권인 의정부(57.22%)·부천(53.65%)·고양(52.16%)과는 약 25~30%p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다. 포천(28.57%)보다도 낮고 최하위 연천(20.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예산의 절대 규모와 증가율은 준수하지만, 세출 구조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경기도 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젊고 소득 수준이 높은 과천시의 인구 구성이 예산 배분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천시 보건·복지 인프라

-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체(+32.6%)·종사자(+28.9%) 수는 늘었지만 전체 산업 대비 비율은 정체·하락
-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는 3.7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31위).

과천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021년 181개에서 2024년 240개로 32.6% 늘었으나, 전체 사업체 대비 비율은 3~3.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종사자수는 2,115명에서 2,727명으로 28.9% 증가했음에도 전체 종사자 대비 비율은 오히려 5.7%에서 3.7%로 2.0%p 하락하였다. 절대적인 보건·복지 인력·사업체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다른 산업 부문(특히 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 등)의 고용·사업체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상대적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2021년 32개에서 2025년 39개로 늘었으나, 노인 천명당 시설 비율은 2~2.1%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는 시설 확충 속도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2023년 기준)에서 과천시는 3.7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1위를 기록하였다. 경기도 평균(19.3개)과 비교해도 5분의 1에 불과하며, 성남시(7.5개), 광명시(6.4개) 등 인근 대도시와 비교해도 과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는 뚜렷하게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천돌보기 제58호는 [출처]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원 자료에서 제시된 구분 항목을 준용하였습니다.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KOSIS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 KOSIS 시군구별 요양기관 현황/의료인력현황 · KOSIS 장애인 등록현황/독거노인가구비율
- KOSIS 건강보험적용인구현황(시도/시/군/구) · KOSIS 시군구(서울, 인천, 경기, 강원)별 진료현황
- KOSIS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체비율&종사자비율/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 지방재정365_지방재정통계(사회복지비중, 결산>우리지자체 세출결산>분야별 세출결산)